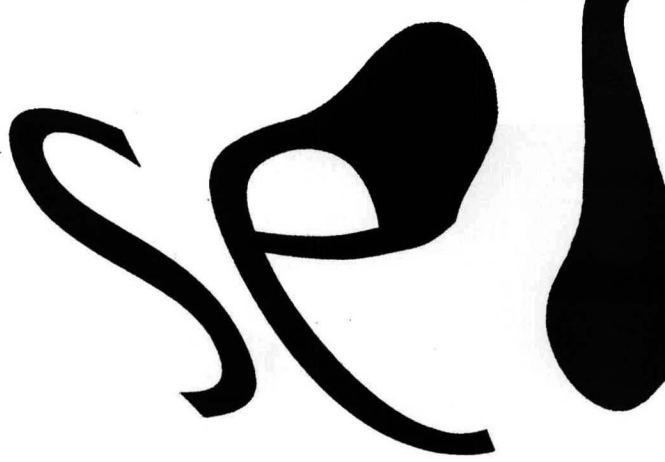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선정기



매월 반복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고르는 색다른 기쁨이다. 다품종소량의 경박한 정보를 바빠 쫓고, 머릿살 아픈 것 저어하는 시류 패션에선 구경키 힘든, 감칠맛 나는 일이다. '출판저널' 기자들이 이 순간을 아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너도 나도 고품질 인식 세계의 일원이 된 듯한 소박한 자고自高함도, 이때만큼은 탓할 게 못 된다. 그런 교감을 바탕으로 이달에도 10권의 양서들을 골라봤다.

'서울' 통해 본 21세기적 문명의 한국적 실체

'살기 힘든 땅' 타령 아닌, 인간과 자연의 씨줄과 날줄 모색

홍성태의《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김형효의《사유하는 도덕경》, 김지석의《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고 이성욱의 유고집《쇼쇼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박무영 외 2명이 지은《조선의 여성들-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이나미의《빙화》, 서석원의《황홀한 쿠바》, 이지호의《동화의 힘, 비평의 힘》, 남난희의《낮은 산이 낮다》, 권지예의《빠리 빠리 빠리》가 '이달의 책' 선정 테이블에 올라온 책들이다.

특히 기자들의 문화적 오감과 공명한 것은《사유하는 도덕경》과《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

치》,《동화의 힘, 비평의 힘》4권이였다.《사유하는 도덕경》은 익히 낮은 고증학적 '고전 대하기'를 거부하는 책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노자의 사상체계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논리와 비논리의 언설을 초극한, 초논리적 사유세계를 넘니들어 관심을 끌만했다. 다년간 프랑스 철학을 섭렵한 저자라서일까. 불확정된 언어·개념으로 인식의 무한한 외연을 확보한, 자크 데리다의 '차연 差延' 과의 교집합적 천착도 눈길을 끌었다.

3S의 원조라 해도 좋고, 순치되지 않은 민중사라 해도 좋을, 그때 그 애기들이《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로 환생, 기자들의 구미를 동하게 했다. 가수 김추자의 현란한 무대매너, 화려함의 극치였던 TBC-TV '쇼쇼쇼', 4천만의 교양지 '선데이서울', 그 뒤안을 음습하게 적신 기만적 '조치' 들- 그런 부조화적 어울림이 있던 때, 곧 '선데이서울' 시대였다. '왜 지금 선데이서울이냐?' 고 묻는다면, 문화비평가 고 이성욱 씨의 반어反語적 암시가 곧 해답이 될 만한, 그런 책이다.

'어린이책일수록 정확하고 마땅한 쓰임의 용어야 한다'-《동화의 힘, 비평의 힘》에서 '어린이 문학' 편집주간 이지호 씨가 내비친 '동화의 힘' 이다. '어린이가 듣고 싶어하는 동화'에 이르기 위한 비평적 노력이 기자들의 공감을 살 만했다. 예비동화작가들과, 동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생한 담론이 있고, 동화를 보는 눈, 동화를 쓰는 '힘' 을 일러주는 지침서다.

기자들은 그러나 두 가지 선정 카테고리에 주목했다. 동시대적 테마와 병렬하는 주제가 첫 번째요, 메시지 자체가 갖는 작품으로서의 그레이드가 두 번째였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책으로《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가 적격이란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서울을 통해 21세기적 문명의 한국적 실체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저자가 월간 '참여사회'에 연재했던 '홍성태의 서울만보기'를 묶은 것이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정작 '서울'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낙망한다. 정체성 없는 근대화의 상징 세운상가와 번쩍이는 초고층 건물들, 초라한 골목길들, 제멋대로 생겨버린 대학로와 압구정동- 그런 난장판 속에 서울에서의 '만보'는 고행이요, '싸움'이라고 단정짓는다.

기자들은 2004년 서울관 신개발주의를 경계하는 또 하나의 아포리즘을 연상했다. '밀어 붙여!' 식 개발이 행여 '서울' 자체를 밀어버릴까 싶은 염려랄까. 다행히도 책 속에서 저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의 제대로 된 씨줄 날줄을 '서울'에서 찾길 권한다. '살기 힘든 서울 땅' 타령이나, 속편한 서울승람과는 다른, 애정어린 응시야말로《서울에서》만의 진정성이다. 그래서 기자들은《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를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꼽는 데 흔쾌하게 동의했다. '서울'을 통해 우리 시대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보자는 바람도 깃들여 있다고나 할까.